

서사무가를 통해 본 한국 신화의 시간인식체계 연구

조홍윤*

〈목 차〉

1. 서론
2. 시간인식 탐색의 전제
3. 시간인식에 대한 실마리
4. 중요 서사공간의 배치에 따른 시간의 양상
5. 현실적인 삶의 문제와 관련한 시간의 양상
6. 결론

1. 서론

신화의 세계관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살펴야 할 것은, 현실의 세계를 초월하는 상상적 시공간에 대한 신화적 사유이다. 이에 한국의 신화세계관을 연구하겠다는 목적으로 필자는 이미 한국 신화의 공간인식체계에 대한 글을 작성한 바 있고,¹⁾ 이 글은 그에 짝을 맞추어 한국 신화의 시간인식체계를 밝혀내고자 하는 시론적 성격을 띤다. 실상 한국의 신화에 대한 작품론적 연구가 풍성한 성과를 거두어 온 것에 비해, 신화 연구의 총론 격인 세계관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못했던 면이 있다. 그러나 신화 세계관의 연구는 신화를 구성하는 인식체계의 원형을

* 건국대학교 박사과정수료

1) 조홍윤, 「서사무가를 통해 본 한국 신화의 공간인식체계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밝히는 일이다. 따라서 개별 신화작품에 대한 충실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화의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이 본 연구의 동기가 된다.

연구의 자료로서는 한국의 전통적인 샤먼집단인 ‘무당’, ‘당골’, ‘심방’ 등에 의해 구전되어온 서사무가를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합하다. 아득히 먼 옛날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민간차원에서 구비전승되며 한국인의 신화적 사유가 총체적으로 깃들어 있는 원형적 텍스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전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서사무가 텍스트 중에서도 특히 한국 신화의 시간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들을 통해 한국 신화 속의 ‘시간’이 지니는 물리적인 성격을 비롯하여, 그러한 시간이 신화의 서사 속에서 구현되는 양상들을 밝힘으로써 대략적으로 한국 신화의 시간인식체계를 찾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주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그리 활발하지 않았다. 김병옥은 일련의 건국신화 및 서사무가 바리테기를 통하여, 그 속에 드러난 시간인식을 살피는 연구를 수행한바 있다. 이는 신화의 시간이 신화의 서사 속에서 구현되는 양상을 밝혔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으나, 결론적으로 현실세계의 시간이 신화적 영원성에 귀속되는 양상을 드러냈을 뿐, 그 구체적인 작동원리를 밝히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점이 아쉽다.²⁾ 오세정 또한 현실세계의 시간과 대별되는 신화의 시간을, 인간의 신화적 상상력의 맥락 속에서 드러내고자 했으나, 이 또한 신화의 시간인식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니었던 바, 앞선 김병옥의 논리에서 크게 나아가지는 못했다는 판단이다.³⁾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선 연구자들의 논의를 수용하여 기반으로 삼는 한편, 신화의 서사 속에서 ‘신화적 시간’이 구현되는 구체적인 원리를 살펴 한국 신화의 시간인식체계를 보다 상세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 김병옥, 「한국 신화의 시간과 공간 - 팽창과 수축의 등가성」, 『어문연구』 13, 충남대학교 문리과대학 어문연구회, 1984.

3) 오세정, 「한국 신화의 원형적 상상력의 구조」, 『한민족어문학』 49, 한민족어문학회, 2006.

2. 시간인식 탐색의 전제

그렇다면 상상적 시공간인 신화의 세계에서, ‘시간’은 어떻게 상상되어 구현되었는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상상력은 과학적·합리적 사고와 반대되는 사유체계로 간주된다.⁴⁾ 그러나 신화를 떠받치고 있는 상상력은 이 같은 단순한 양항체계로 환원될 수 없다.⁵⁾ 비합리적인 상상력은 현실의 인간 삶이 지닌 합리성을 질료로 하며, 상상 속 신화세계의 비논리적 형상들은 다시금 현실의 삶을 구성하는 질료가 된다. 이러한 점은 신화적 상상력을 통하여 ‘현실의 시간’이 ‘신화의 시간’으로 재구성되고, 신화의 시간인식체계는 다시 현실 속 삶의 시간을 인식하는 틀로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신화 속의 시간인식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객관적이고 공통적인 외부조건으로서의 시간관념을 잠시 내려놓아야 하겠다.⁶⁾

생철학적 인식론을 주장한 니체는, 인식의 대상이 되는 전체 세계는 생과 연관된 것이고 생과의 연관성을 상실할 때는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한다고 주장한다.⁷⁾ 이러한 주장은 시공간을 포함한 세계의 모든 인식대상물이 ‘삶’에서부터 유리되어 인식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것은 생의 충동과 힘에 의지에 의해 인식되며, 인식의 대상물은 인식주체의 직관과 관점, 해석에 따라 인식 된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작용이 인간의 생을 더 건강하게 할 것이라 말한다.⁸⁾ 니체에 따르면, ‘시간’도

4) 이 말은 신화시대의 향유자들에게 있어서 신화가 세계를 인식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인식 틀로서 작용했음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의 ‘합리적·과학적’이라는 의미는 근대적 사유방식으로서의 그것을 의미한다는 설명으로 오해를 피하고자 한다.

5) 오세정, 앞의 논문, 2006, 233면.

6) 이러한 문제의식은 오세정의 기존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신화의 시간과 시간의식은 논리적으로 계측하기 어렵다. 인간이 경험하는 현실적 시간은 일회적이며 단선적, 종적인 것이 특징이다. 특히 역사의식이 생겨나면서 시간은 연대기적인 것이 되고 말았다. 신화는 이러한 인간적·현실적 시간(관)과는 아주 대별된다.”라고 말하였다. 위의 논문, 248면.

7) 홍일희, 『니체의 생철학 담론』,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2, 18면.

8) 위의 책, 15~38면.

공통된 기준으로서의 외부조건으로 인식되기보다는 개별 주체의 삶에 따라 다양하게 포착되어야 할 것이다.

생각해 보면 시간에 대한 시초의 인식은 니체의 주장과 같이 삶의 충동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옳다. 고대인들이 해와 달의 움직임, 그로 인한 낮과 밤의 교차를 통해 감각적으로 시간의 흐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해도, 시간을 인식할 필요를 만들어 주는 것은 그것이 삶의 조건으로서 기능할 때이다. 적정한 시간에 식사를 하고, 온도가 저하되며 시야가 제한되는 시간에는 활동을 자제하거나 잠을 통해 체력을 회복하는 등, 고대인들이 시간을 인식해야 했던 이유는 모두 그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이다. 요컨대 신화시대의 시간은, 그 외부조건으로서의 중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 하더라도, 보다 근본적으로는 개별 주체의 삶에 밀착되어 인식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실상 시간을 분초 단위로 균등하게 분절된 선상에서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를 향해 직선으로 나아가는 것이라 인식하는 현대인의 시간관념은 근대적 사고의 산물이다. 철도와 교통의 발달로 인해 속도와 거리가 직선상의 움직임으로 계산되기 시작하면서 시공간도 자연적인 배치를 벗어나 직선상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인간의 삶과 시공이 분리되기 시작하고 시간은 인간의 삶과 유리된 외부조건으로 인식되게 되었다⁹⁾ 그렇다면 신화적 사유에 의해 시간을 인식하는 것은, 근대적 사고에 의한 외부조건으로서 시간을 인식하는 것보다 조금 더 삶에 밀착된 형태일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¹⁰⁾

이처럼 신화의 시간이 삶에 밀착된 것이라면, 현실의 삶과 현실 속 '삶의 시간'은 상상의 신화텍스트 속에서 주인공의 삶의 과정에 해당하는

9) 고미숙, 「속도의 경이, 시공간의 재배치」, 『나비와 전사』, 휴머니스트, 2006, 18~82면.

10) 필자는 이미 <원청강본풀이>에 대한 논의에서, <원청강본풀이>가 시간의 신에 대한 서사임을 전제하고, 그 서사 속에서 '시간의 의미'가 구현되는 양상을 연구한 바 있다. 본고의 작업은 그와는 방향성이 다르지만, 신화적 시간에 접근하기 위한 기본 전제, '신화적 시간은 인간의 삶과 밀착된 형태로 상상되고 구현되었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본다. 조홍윤, 「<원청강본풀이>의 서사에 나타난 '시간'의 의미 연구」, 『남도민속연구』 23, 남도민속학회, 2011, 415면 참조.

‘서사’에 구조화 되어 녹아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신화 속에 깃든 시간인식체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신화 텍스트에서 엿보이는 시간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그러한 시간이 서사 속에서 구현되는 양상을 함께 살펴야 할 것이다.

3. 시간인식에 대한 실마리

한국의 서사무가를 통해 신화적 시간인식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창세신화이다. 그야말로 태초의 시간, 즉 창세의 순간 시작된 ‘시간의 기원’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원형적 시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인식을 살펴보고 그를 통해 논의의 실마리를 풀어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다음은 한국의 제주도 지역에서 창세신화 자료로 전해지는 <천지왕본풀이>의 한 대목이다.

천지혼합으로 이르옵기는
 어떠한 것이 천지혼합입니까.
 하늘과 땅이 맞붙은 것이 혼합이오.
 혼합한 후에 개벽으로 이르옵기는
 어떠한 것이 개벽이오
 하늘과 땅이 각각 갈라서 개벽입니다.
 천지개벽이 어떻게 되었으리까
 하늘로부터 조이슬이 내리고
 땅으로부터 물이슬이 솟아나서
 음양이 상통한즉
 천개(天開는 자(子)하고 지개(地開는 축(丑)하고 인개(人開는 인(寅)하니”)

제주도 큰굿의 첫 제차는 ‘초감제’이다. 이 제차에서는 ‘베포도업침 - 국과 날 섬김 - 집안 연유 닦음 - 군문 열림 - 새다림 - 오리정’의 6단계 소제차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 첫 제차에서 천지혼합으로부터 우주

11)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33~34면 참조.

개벽, 해와 달과 별의 발생, 국가의 형성 등 지리적이며 역사적인 사상의 기원을 차례로 노래한다. <천지왕본풀이>는 이 베포도업침에서 가장되는 신화이다. 대개 굿의 첫 번째 제차에서는 ‘언제, 어디서, 무엇’ 때문에 굿을 하여 신을 부른다는 이유를 신에게 알려야 하는데,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천지개벽으로부터 시작하여 현재 굿을 하는 장소와 시간까지의 과정을 무가로 부른다.¹²⁾

인용된 부분은 세계가 시작되는 순간의 사건들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천지개벽 이전의 세계는 ‘천지혼합’, 여기서 ‘천지’, 하늘과 땅은, 하늘과 땅 그 자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라는 거대한 공간의 틀에 포함될 수 있는 세계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천지’가 ‘혼합’되어 있다는 것은 하늘과 땅으로 대변되는 온 세계의 맹아가 무질서하게 뒤섞여 뭉쳐있는 상태를 말한다. 천지혼합의 상태에서는 공간, 시간, 생명 등의 모든 요소가 혼재되어 독립된 의미를 갖지 못한다. 하늘과 땅이 갈라져 공간이 열리게 되는 순간에 비로소 세계의 구성요소들이 이슬처럼 흩어져 나와 상호작용함으로써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시간의 탄생과 관련하여 중요시할 것은 ‘천개(天開)는 자(子)하고 지개(地開)는 축(丑)하고 인개(人開)는 인(寅)하니’라는 설명이다. 이는 하늘이 자(子)방향으로 열리고 땅은 축(丑)방향으로 열리고 인간은 인(寅)방향으로 생겨났다는 뜻이다. 천(天)·지(地)·인(人)의 삼재(三才)로써 세계를 설명하는 동양적 도교의 세계관에 따라, 세계를 구성하는 3요소인 하늘과 땅과 사람이 각각의 방향성을 가지고 형성되는 과정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방향을 지칭하는 자(子)·축(丑)·인(寅)은 24시간을 12단위로 나누어 나타내는, 한국의 전통적인 시간단위인 ‘십이간지(十二干支)’의 첫 세 단위이다. 세계 구성의 3요소가 이러한 십이간지에 따라 열렸다는 것은, 천지개벽의 순간 공간의 열림을 통해 시간의 흐름 또한 생겨났음을 나타내고 있다.

임재해는 이러한 내용이 결국 시간 개념과 공간 개념이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다른 국면으로 인식

12) 김의숙이창식, 『한국신화와 스토리텔링』, 북스힐, 2008, 127면.

하고 있다는 점에서 놀랄 만한 세계인식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¹³⁾ 그러나 더 세세하게 살펴보면 텍스트의 미묘한 배치가 눈에 띈다. 앞서 ‘천지 혼합 -> 천지개벽’의 공간형성과 만물의 생성을 이야기한 연후에, 굳이 다시 하늘과 땅의 열림을 십이간지의 방향성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단순히 같은 내용을 중복구송했다는 판단도 가능하지만, 세계의 탄생을 노래하는 엄숙한 제례의 과정에서 구송되는 사설인 만큼 그 사건 내용의 배열이 큰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다.¹⁴⁾ 이는 즉 ‘공간의 열림’이라는 사건에 대한 설명 후에, 다시 ‘시간의 흐름’이라는 독립된 사건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며, ‘공간의 열림’이 ‘시간의 흐름’보다 먼저 배치된 것은 시간의 흐름보다 공간의 열림이 우선됨을 말한다. 결국 공간의 열림이 시간의 흐름을 위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시간이 공간에 종속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인식을 해당 내용을 통해 엿볼 수 있는 것이다.

‘공간에 종속된 시간’에 대한 인식의 단면은 시간의 신에 대한 서사무가인 <원천강본풀이>에서 찾을 수 있다. <원천강본풀이>에서 ‘원천강(袁天綱)’은 일이 확실하고 의심이 없음을 가리키는 말이고, 중국 당(唐)대에 활동한 유명한 복사의 이름이기도 하다. 그리고 인간의 운명을 알아내는 지식과 지혜, 시간의 근원으로서의 의미를 담은 신성공간을 가리킨다. <원천강본풀이>는 사면이 인간의 운명을 예지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증명하려는 입무(入巫)의식에서 구송되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그 제차도 남아있지 않고, 이본도 전해지지 않는 특수본풀이로서 그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다.¹⁵⁾ 주인공 오늘이는 인간으로서 인간의 운명을 예지하는 능력을 지니고 결국은 신으로 좌정하게 되는데, 이는 시

13) 임재해, 「신화에 나타난 우주론적 공간 인식과 그 상상체계」, 『한민족어문학』 28, 한민족어문학회, 1995, 4면.

14) 물론 ‘중복구송’을 구술적 특성을 지닌 서사무가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보고, 이러한 해석이 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반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미 공간의 열림에 대한 내용이 가장된 이후에 시간의 탄생을 은유하는 내용이 구송되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적극적인 해석도 무리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15) 강권용, 「제주도 특수본풀이 연구: <원천강본풀이>, <세민항제본풀이>, <허궁에기본풀이>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38-43면 참조.

간의 근원인 원천강으로의 여정을 통하여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시간의 비밀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¹⁶⁾

이리하야구경이나하라고허니
만리장성둘러싸흔곳에
곳곳마다문을열어보았다
보니춘하추동사시절이모다잇는것이엇다기

해당 내용은 <원천강본풀이>의 주인공인 ‘오늘이’가 부모를 찾기 위한 여정 끝에 ‘원천강’에 도달하여 그 문을 열어보는 광경이다. 이때 오늘이가 목격하게 되는 것은 하나의 공간에 사계절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모습이다. 봄에서 겨울로의 시간이동은 1년의 주기를 뜻하지만, 겨울에서 봄으로, 다시 봄에서 겨울로의 시간이동은 영원한 시간의 순환을 의미한다. 중요한 것은 영원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사계절이 한 공간에 존재한다는 점이다. M. Eliade는, 신화적 형태는 전형적 유형, 반복, 세속적 시간의 파괴와 원형적 시간으로의 통합이라고 하였다.¹⁸⁾ 이에 따르면 신화의 시간은 보다 본질적인 ‘성’의 공간이 시간의 근원이 되어 ‘속’의 공간에서 유효했던 시간 원리가 ‘성’의 공간에서는 무화되는 현상을 보이게 된다. 이는 물리적인 현상으로는 불가능한 신화적 역설이다. 원천강이라는 하나의 공간에 4계절이 배치됨으로써 원천강에서의 한 순간은 영원으로 치환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천강은 순간에서 영원까지의 모든 시간에 대한 의미가 집약된 ‘시간의 근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천강의 문을 열어본 그 순간에 영원한 시간의 비밀을 목격하게 된 오늘이가 시간의 신으로서 좌절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영원한 시간의 흐름이 한 순간으로 집약된 공간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공간의 배치에 따라 ‘시간의 밀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한국의 여러 서사무가 자료에서 공간에 따라 시간의 흐름이

16) 조홍윤, 앞의 논문, 431면 참조.

17) 적송지성추엽용, 『조선무속의 연구』 상, 동문선, 1937, 298면.

18) Mircea Eliade, 김병욱 외 역, 『문학과 신화』, 예림, 1998, 328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것처럼 공간에 따라 시간의 흐름에 차이가 생기는 것도 시간의 밀도와 관계된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그러한 가정에 대해 확인해보고, 궁극적으로는 공간의 배치에 따른 시간의 밀도 차이가 신화의 서사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밝혀보고자 한다.

4. 중요 서사공간의 배치에 따른 시간의 양상

서사적 공간배치에 따른 시간의 밀도차이를 논하기 위해서 우선 ‘시간의 근원’인 원천강의 공간에서 힌트를 얻어 보고자 한다. 원천강을 시간의 밀도로 표현하자면 영원한 시간이 순간에 존재하는 극밀의 공간으로서 시간의 근원이 되는 ‘성’의 공간이다. 시간의 근원이 최고의 시간 밀도를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말하고자 하는 바는 <원천강본풀이>의 서사와 시간의 근원인 원천강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주인공인 오늘이가 <원천강본풀이>의 서사를 통해 해결하고자 했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부모를 만나는 일이었고, 부모와의 만남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원천강이었다. 그러므로 <원천강본풀이>에서는 하나의 서사공간으로서 가장 핵심적인 서사가 배치된 공간이 바로 원천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천강은, 오늘이가 시간의 신으로서 좌정하기 위해 반드시 도달해야 했던 시간의 근원으로서의 의미뿐 아니라, 서사적으로도 가장 핵심적인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어떠한 힘에 ‘근원’이 있다고 가정할 때에, 근원에서 과생되는 영향력은 주변으로 뻗어나가며 일정한 원심력을 지니게 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그렇다면 시간의 근원인 원천강에서 원을 그리며 뻗어나가는 영향력을 생각해 보았을 때, 원천강에서 주변부로 멀어질수록 그 원심력은 약화되며, 그러한 원심력의 차이가 시간의 밀도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원천강이 곧 <원천강본풀이> 서사의 핵심 공간인 것을 생각해 보면, 원천강을 모델로 하여 서사공간에 따른 시간의 밀도 차에 대한 일반론을 도출해 낼 수 있을 듯하다. 즉, 신화의 여러 서사

공간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서사가 배치된 공간이 해당 신화에서 가장 높은 시간 밀도를 지닌 공간이 된다는 가정이다.

그러한 가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공간에 따라 시간의 흐름이 다르게 나타나는 여타의 신화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의 여러 서사무가 중에서도 대표성을 띠다 할 수 있는 <바리데기>의 예를 들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바리데기>는 죽은 자의 영혼을 인도하는 제의인 오구굿 계통의 의례에서 부르는 서사무가이다. 이 본풀이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널리 전승되고 있는데, <바리데기>, <바리공주>, <오구본풀이>, <오구풀이>, <칠공주>, <무조전설> 이라고도 부른다. 대략의 내용은 버려진 공주가 자신을 버린 부모를 위해 저승으로 가 약수를 구하는 험한 여정을 겪어내고서 죽은 자의 영혼을 인도하는 신으로 좌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바리데기>의 서사 속에서 구현된 시간의 양상을 살펴기 위해 우선 그 서사단락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제시한다.

- 1)바리데기 부모인 왕과 왕비가 혼인을 한다.
- 2)연이어 공주를 낳는다.
- 3)일곱 번째도 공주를 낳는다.
- 4)부왕에 의해 일곱 번째 공주인 바리공주가 버림을 받는다.
- 5)부왕이 병에 걸린다.
- 6)병에 필요한 약이 약수임을 알게 된다.
- 7)바리데기가 부모를 만난다.
- 9)여섯 공주에게 구약행을 부탁하나 모두 거절한다.
- 10)바리데기가 약수를 가지러 떠난다.
- 11)약수를 가지러 가는 길에 일정한 고난을 겪거나 과업을 수행한다.
- 12)무장승을 만나 약수를 얻기 위해 나무하기 삼년, 불 때기 삼년, 물 길기 삼년을 해준다.
- 13)무장승의 요구로 혼인하여 아들을 낳아준다.
- 14)약수를 가지고 와 부왕을 살린다.
- 15)바리데기가 부왕을 살린 공을 인정받는다.¹⁹⁾

19) 제시된 서사단락은 흥태한에 의해 정리된 각 이본들의 공통적인 서사단락을

위와 같이 정리된 <바리데기>의 서사를 살펴보다 보면 시간의 흐름이 괴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바리가 병에 걸려 목숨이 위태로운 부모를 위해 서천서역, 즉 저승으로의 여행을 시작하고서 약수를 얻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시간의 소요정도를 계측하기 어려운 여타의 여정을 제외하고도, 무장승을 만나 일을 해준 9년의 시간에 아들 여럿을 낳아준 시간을 더하면 대략 15년여의 긴 세월이 지났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서천서역으로 가서 무장승을 찾아가는 동안의 여정이나, 무장승의 거처를 떠난 이후의 여정까지를 감안하면 상당한 시간이 더 소요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바리는 약수를 얻어 돌아온 시점에서 막 일어난 국상의 소식을 듣게 된다.

한 곡을 당도하니 목동들 하는 말이
 지게 장단 두드리며 잘두 되고 잘두 났네
 우리 나라 칠공주 부모 보양 가고 어마 소리가 허사로다
 부모 보양 늦어지어 은관자 은대치고 금관자 부러지고
 염전 석 전이 떠올랐네
 애기가 깜짝 놀래시며 그대들이 뭐라고 하였는고
 한 마디만 더 해 봅소
 (중략)
 그대들은 하늘에서 떨어졌오 땅에서 솟았오
 배 안에 들은 애기두 국상 난 줄을 아는데
 어찌야 그대들은 나라에 국상 난 줄을 모르느냐 하시더라- 박금순본²⁰⁾

이것을 곧 죽으리라고 하였던 부모가 그 긴 시간동안을 끈질기게 살아 남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결국 서천서역으로 떠난 바리데기의 시간, 특히 약수를 얻었던 무장승의 거처에서 그토록 긴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에, 부모가 살아가는 공간에서의 시간은 얼마 흐르지 않았다고

참조하여 작성된 것이다. 홍태한, 「서사무가 <바리공주>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46~48면.

20) 홍태한, 『서사무가 바리공주 전집』 4, 민속원, 2004, 78~79면.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김병옥은 “바리데기가 지하세계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오래도록 극복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시간의 역전 현상이 일어났던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²¹⁾ 이는 개연성이 있는 해석이지만, 그러한 시간의 배치가 일어난 이유에 대한 답은 되지 못한다. 그에 대해서는 앞서 이야기한바, 서사적 중요도에 의한 서사공간별 시간의 밀도 차이로서 설명이 가능하다. <바리데기>에서 가장 중요한 서사단락은 버려진 공주인 바리데기가 자신의 존재성을 증명하기 위해 약수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부분이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이 가장 두드러지는 대목이 무장승의 거처에서 나무를 하고, 불을 때고, 물을 길는 9년의 시간, 아들을 낳아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시간인 것이다. 그 오랜 시간을 지낸 후에 바리데기는 드디어 부모를 살릴 약수를 얻게 되는데, 이때에 드러나게 되는 약수의 정체는 바리데기가 왜 그 오랜 시간동안 허드렛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길러야 했는지를 보여준다.

대왕양마마 한날 한시에 승하하심이 분명하오

양력수 주상이다

그대가 길든 물은 양력수니 금장군에 지고 가오

그대가 때든 나무는 솜살이 살살이 삐살이니

금지계에 지고 가오 - 서정자본²²⁾

인용된 내용처럼, 늘 길어다 쓰던 물이 바로 약수였고, 늘 베어다 불을 때던 나무가 죽은 사람의 뼈와 살과 숨을 되돌릴 수 있는 생명의 꽃이었다.²³⁾ 이는 일상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부분이다. 인간은 늘 값진 무엇

21) 김병옥, 앞의 논문, 6~7면 참조.

22) 홍태한, 앞의 책, 155면.

23) 오구대왕의 희생에 솜살이·살살이·삐살이 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혹, 이승에 있던 오구대왕의 죽음이 오래된 일인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다. 죽은지 오래되어 뼈만 남은 오구대왕을 소생시킨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저승에서 바리데기가 보낸 시간과 이승의 오구대왕이 보낸 시간의 흐름에 차이가 있다는 전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오구대왕이 죽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국상의 소식이 퍼지게 되는 것이 부

인가를 얻기 위해 외부로 시선을 돌리곤 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생활공간 안에서 반복되는 일상에 충실할 때에 더 값진 삶을 누리게 될 것을 은유하고 있는 것이다. 바리공주가 9년간의 허드렛일을 통해 일상이 지닌 생명력을 획득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의 아버지가 아들을 얻지 못한 분노로 자신의 소중한 딸을 버림으로써 병을 얻게 되는 것과 매우 상반되는 의미를 지닌다. 바리데기는 그렇게 주어진 삶의 조건 속에서 찾아낸 생명력을 통해 자신을 버린 아버지에게 그 존재성을 증명해내었던 것이다. 일곱 공주를 제대로 길러내지 못한 아버지와 달리, 아들들을 잘 길러내는 시간 또한 그러한 존재증명의 시간에 다름 아니다. 이처럼 <바리데기>의 서사에서 가장 중요한 서사공간으로 배치된 무장승의 거처는, 그 서사 속에서 시간의 근원점으로 작용하여 가장 높은 시간의 밀도를 지니게 되고, 그와 상반되는 아버지의 공간은 시간의 주변점으로서 배치되어 가장 낮은 시간의 밀도를 보이게 되었다.

5. 현실적인 삶의 문제와 관련한 시간의 양상

지금까지의 논의들을 따라오다 보면, 혹 ‘시간의 밀도’라는 것이 M. Eliade의 말처럼 ‘성(聖)’과 ‘속(俗)’으로 나누어진 공간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단순히 보다 본질적인 ‘성’의 공간이 시간의 근원이 되어 ‘속’의 공간에서 유효했던 시간 원리가 ‘성’의 공간에서는 무화되는 현상을 비틀어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말이다. 신화서사의 성격상 서사의 핵심 단락은 거의 대부분 ‘성’의 공간에 배치될 확률이 높다. 신화를 신화답게 하는 요소가 바로 신성한 공간에 대한 상상이 나타나는 부분이므로, 그와 같은 ‘성’의 서사공간에 전체 서사의

자연스럽다. 여기서의 숨살이·살살이·뼈살이는 ‘죽음’이라는 현상을 3단계의 과정으로 사유하고 있는 신화 향유자들의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인간이 죽음에 이르면 가장 먼저 숨이 끊어지고, 다음으로는 살이 썩어 사라지고, 마지막으로 뼈가 삭아 바스라진다. 이처럼 ‘죽음’이란 숨이 죽고, 살이 죽고, 뼈가 죽는 삼단계의 과정이라는 생각이 반영되어, 뼈살이·살살이·숨살이의 과정으로 ‘회생’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핵심이 되는 부분이 배치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앞서 제시된 서사무가들의 경우에도 모두 ‘성’의 공간에서 시간의 밀도가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번거로운 논의를 피는 이유는, ‘상속’의 구분만으로는 신화적 시간인식체계의 내질을 세밀하게 살펴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성’의 공간에 대한 상상에 의해 만들어진 시간인식체계라 해도, 그 상상의 기반은 신화시대 사람들의 현실적 삶에 대한 인식에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다 서사적이고 현실적인 메커니즘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성’의 공간이라 해도 어떠한 경우에는 시간의 흐름이 빨라지고 또 어떠한 경우에는 시간의 흐름이 느려지는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 유형의 민담과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다.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한눈을 팔다가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속담 혹은 민담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체로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신선들이 노는 곳을 발견하고서, 도끼를 놓아둔 채로 그것을 구경하거나 동참하다가 잠시 뒤에 돌아와 보니 도끼자루가 썩을 만큼 시간이 흘러있더라는 내용이다. 이는 신화의 서사는 아니지만, 신화의 시공간에 대한 ‘신화적 사유’²⁴⁾를 엿볼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거니와, ‘성’의 공간에서 시간의 밀도가 낮아지는 문제에 대해 한국의 어떤 텍스트보다도 대표성을 띠는 사례라는 점에서 분석의 필요성이 있다.

그전에 금강산 밑에 한 사람이 살았는데, 소구시로(소구유를) 파로 간기라, 금강산에. 강원도 금강산에 가몬 백등등이라는 데, 솔이 백 개, 솔처럼 이리 생긴 돌이 백 개, 올라가몬 있어. 거어서 소구시로 팔라니까 거어서 쿵

24) 이 글에서 구명하고자 하는 바는 신화 속에 녹아있는 시간인식체계의 원형이다. 신화적 원형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간 삶의 보편적 원리로서 계속적인 재현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신화 텍스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야기 텍스트를 통해서도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화적 원형을 밝힘에 있어서 신화의 주변 장르에 대한 분석도 무의미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조현설은 신화 전승의 흐름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신화적 사유’라는 개념을 사용했던 바, 본고의 ‘신화적 사유’의 의미 또한 이에 준한다. 조현설, 「신화적 구비서사의 현상과 전망 - 경기도 양주지역 이야기문화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17, 한국구비문학회, 2003, 90면.

절절거리고 뭐 음악소리가 들리고 하거든. 소구시로 파다가 소구시다가 도끼로 썰어 놓고는 서얼설 기이 올라가 보이까네, 신선선녀가 노는데, 신선하고 선녀들하고 노는데, 잘 놀드래.

그래 가 번듯이 가지는 못하고 바우 밑에 가만 은신해가 있었다는 기야. 그러이까네,

"한 잔 먹고 놀자."

이렇게 하더라는 기라. 그러이까네, 주옥 앓아가 술을 묵다가 한 사람이(신선이),

"아, 어데 비린 내가(냄새가) 난다."

이러드란 기야, 한 사람, 한 신선이. 그래 쫓아 오더란 기라. 그래,

"이리 오라고, 이리 오라고, 술 한 잔 묵으라."

고. 그래 오라고 하드래. 그래 가이까네, 한 꼬부 주는 기라. 그래 그 술을 한 잔 주는데, 신선주거든. 그래 그거로 묵고 나이 안주는 똑 뺀디기 처럼 이렇게 생긴 거로 주더라는 기라. 그래 묵고 오이까네 그만 구시가 다 썩어져 빠고, 도끼자리도 다 썩어 빠고, '신선놀음에 도끼자리 썩는다.'

고25).

여기서는 신선들이 노는 '성'의 공간과, 소구유를 파던 촌부가 속한 '속'의 공간이 선명하게 대비되면서, 두 공간의 시간 흐름이 지닌 차이에 의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서사에서도 중요한 것은 촌부가 신선계를 발견하여 신선들의 유희를 구경하고 그에 동참하는 부분이며, 상대적으로 '성'의 공간에 대한 서사적 중요도가 높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 서사에서는 서사적 중요도가 더 높은 '성'의 공간에서 시간의 밀도가 낮아지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서사적으로 중요한 '성'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촌부의 서사가 그의 삶에 부정적인 방향성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촌부에게 있어서 도끼는 당면과제인 소구유를 파는 일에도 중요한 도구일 뿐 아니라, 벌목을 통한 연료의 조달 등 현실적인 삶의 조건으로서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한 도끼를 손에서 놓아버리고 자신의 삶과 관계없

25) 김삼남 구연,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8집 13책, 고려원, 1986, 506~507면.

는 신선들의 유화에 눈을 돌리게 됨으로써, 그는 가장 중요한 서사의 국면에서 자신의 삶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전체 서사공간에서 시간의 근원이 되는 ‘선계’는 높은 서사적 중요도에 의해 높은 시간의 밀도를 가져야 하지만, 여기에 ‘삶’이라는 변수가 추가되면 그 역이 성립되고 마는 것이다. 이는 앞서 예시한 두 서사무가에서, 전체 서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사공간에서의 주인공의 행위가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과 상반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똑같은 중요 서사 공간에서의 시간 밀도가 반대의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 신화의 시간인식체계는 니체의 생철학적 시간관과 마찬가지로 삶의 과정에서 인식되는 시간의 상대적 특성에 주목하고 있다. 삶의 시간 중에서도 중요한 국면에서의 시간 밀도가 극한대로 올라가는 경험들은 모두에게 있다. 죽음을 마주하는 찰나의 순간, 인생의 모든 국면들이 주마등으로 재생되는 상황도 그러하다. 짧은 시간 동안 아주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할 때에 일분일초가 생생하게 인식되는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반대로 온종일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에는 24시간인 하루가 찰나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삶 속에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얼마나 충실하게 보내는가에 따라 그 시간의 길이도 다르게 느껴지듯이, 그러한 시간의 충실도에 대한 인식이 신화의 시공간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시간의 근원점과 주변점을 구분하여 시간의 밀도를 다르게 설정하는 시간인식체계가 만들어진 것이다.

6. 결론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신화의 시간인식체계는, 배치된 서사공간의 서사적 중요도에 따라, 서사공간에서의 주인공의 행위가 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에 따라, 시간의 밀도에 차이를 두고 시간의 근원점과 시간의 주변점이 다른 시간의 흐름을 갖도록 설정되어 있다. 이는 삶속에서 시간의 충실도에 따라 상대적으로 시간을 인식하였던 신화시대 사람들의 세계관이 그대로 신화의 시공간에 구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러한 시간인식체계에 대한 논의는, 한국의 신화세계관을 정립하는 기초적인 논의로서의 의의만이 아니라, 신화의 서사를 분석함에 있어서도 서사공간의 시간 흐름에 비추어 신화서사의 중요 국면을 용이하게 인식하도록 하는 일종의 지표로서 작용할 수 있다. 더하여 콘텐츠에 관련한 문제로서 ‘신화의 현대적 재현’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설정 틀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신화의 시간인식체계를 통해 엿볼 수 있는 신화 향유자들의 지혜이다. 서사적 중요도에 따라, 행위의 영향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는 시간의 흐름은, 삶 속에서 어떻게 시간을 인식하고 그 시간들을 충실하게 영위해갈 것인지에 대하여 소소한 깨달음을 전해주고 있다. ‘시간은 금이다.’라는 구호에 따라서 많은 현대인들이 분초단위로 나누어진 ‘시간의 전장’에 살아가고 있다. 문제는 ‘시간’은 ‘금’이지만 ‘금’은 ‘삶’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처럼 시간이 인간 삶의 외부 조건으로 작용할 때 인간은 시간의 노예가 된다. 그러나 신화 속 주인공처럼 삶의 국면에 따라 시간을 인식하고, 그러한 시간을 삶을 위한 행위들로 채워가고자 할 때에 우리는 우리 시간의 주인이 될 수 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신화적으로 시간을 사유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참고 문헌

1. 기본 자료

- 김의숙이창식, 『한국신화와 스토리텔링』, 북스힐, 2008.
적송지성추엽용, 『조선무속의 연구』 상, 동문선, 193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8집 13책, 고려원, 1986.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홍태한, 『서사무가 바리공주 전집』 4, 민속원, 2004.

2. 논문 및 단행본

- 강권용, 「제주도 특수본풀이 연구 : <원청강본풀이>, <세민황제본풀이>, <허궁 애기본풀이>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강진옥, 「신성과의 소통방식을 통해 본 무속의례와 신화의 공간성 연구」, 『비교민속학』 39, 비교민속학회, 2009.
고미숙, 『나비와 전사』, 휴머니스트, 2006.
김병욱, 「한국 신화의 시간과 공간 - 팽창과 수축의 등가성」, 『어문연구』 13, 충남대학교 문리과대학 어문연구회, 1984.
김현주, 「고전서사체에서의 시간의 성격」, 『시학과 언어학』 9, 시학과 언어학회, 2005.
오세정, 「한국 신화의 제의적 서사 규약과 소통 원리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_____, 「한국 신화의 원형적 상상력의 구조」, 『한민족어문학』 49, 한민족어문학회, 2006.
이수자,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장영란, 「시간의 신화와 철학의 윤리적 정조 -그리스 신화와 철학을 중심으로」, 『철학과 현상학 연구』 40, 한국현상학회, 2009.
조현철, 「신화적 구비서사의 현상과 전망 - 경기도 양주지역 이야기문화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17, 한국구비문학회, 2003.
조홍윤, 「서사무가를 통해 본 한국 신화의 공간인식체계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_____, 「<원청강본풀이>의 서사에 나타난 ‘시간’의 의미 연구」, 『남도민속연구』

23, 남도민속학회, 2011.

허남춘, 「제주 서사무가에 담긴 과학과 철학적 사유 일고찰 - 일반신본풀이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48, 국어국문학회, 2008.

홍일희, 『니체의 생철학 담론』,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2.

Mircia Eliade, 김병욱 외 역, 『문학과 신화』, 예림, 1998.

국문초록

서사무가를 통해 본 한국 신화의 시간인식체계 연구

조홍윤

이 연구는 한국 신화의 세계관을 제시하기 위한 기획으로서, 한국 신화의 원형적 시간인식체계를 구명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창세신화인 <천지왕본풀이>를 통해 태초의 시간에 대한 인식을 살펴 시간의 공간 종속적 성격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시간의 공간 종속적 성격은 <원천강본풀이> 속 ‘원천강’의 형상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는 바이다. 그런데 ‘원천강’의 형상은 단순히 시간의 공간 종속적 성격을 드러낼 뿐 아니라 공간 배치에 따른 시간의 밀도에 대하여 실마리를 제공한다. 요컨대 서사적 중요도가 높은 공간에 시간의 근원점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공간에 주변점이 배치된다는 원리이다. 이러한 원리는 <바리데기>의 분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더하여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 유형 민담의 분석을 통해, 시간의 근원점에서 이루어지는 주인공의 행위가 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시간의 밀도가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한다는 원리를 밝혀내었다. 이러한 시간인식체계에 대한 논의는 한국의 신화세계관을 정립하는 기초적인 논의로서의 의의만이 아니라, 신화의 서사를 분석함에 있어서도 서사공간의 시간 흐름에 비추어 서사의 중요 국면을 용이하게 인식하도록 하는 지표로서 작용할 수 있다. 더하여 콘텐츠에 관련한 문제로서 ‘신화의 현대적 재현’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설정 틀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신화, 한국 신화, 신화적 사유, 원형, 시간

Abstract

A Study on the Time Perception System of Korean Myths Viewed through Shamanic Epics

Cho, Hong-youn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present the world view of Korean myths through explaining the archetypal time perception system of Korean myth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perception of time in the beginning through creation myth ‘Chonjiwan gbonpuri’ and revealed the space-dependent nature of time. The space-dependent nature of time is represented well through the configuration of ‘Wonchongang’ in ‘Wonchongangbonpuri’. However, the configuration of ‘Wonchongang’ not only reveals the space-dependent nature of time but also provides a clue to the density of time according to spatial allocation. Simply speaking, the origin point of time is allocated to a space of high narrative importance, and marginal points are allocated to a space of relatively low importance. This principle was confirmed through the analysis of ‘Baridegi’. Through the analysis of folktales whose stories tell, “Time files when you’re having fun,” it was found that the density of time goes up or down depending on the effect of the main character’s acts on his life. Such a discussion on the time perception system is meaningful not only as a ground work for understanding the world view of Korean myths but also as an effort to establish an indicator for r

recognizing crucial phases of mythical narratives based on the time flow of narrative spaces in analyzing mythical narratives. As an issue related to contents, furthermore, it may provide a meaningful frame for 'contemporary representation of myths'.

Key words : myth, korean myth, mythical thought, archetype, time

논문 받은 날 : 2014년 4월 30일

심사 기간 : 2014년 5월 16일~6월 10일

실기로 한 날 : 2014년 6월 11일